

# 고용동향 브리프

2019

Vol.5

## 01

주요 고용이슈 심층 분석  
30~34세 여성 고용률 현황

## 02

통계포커스  
연령대별 고용률 증감 현황



# 30~34세 여성 고용률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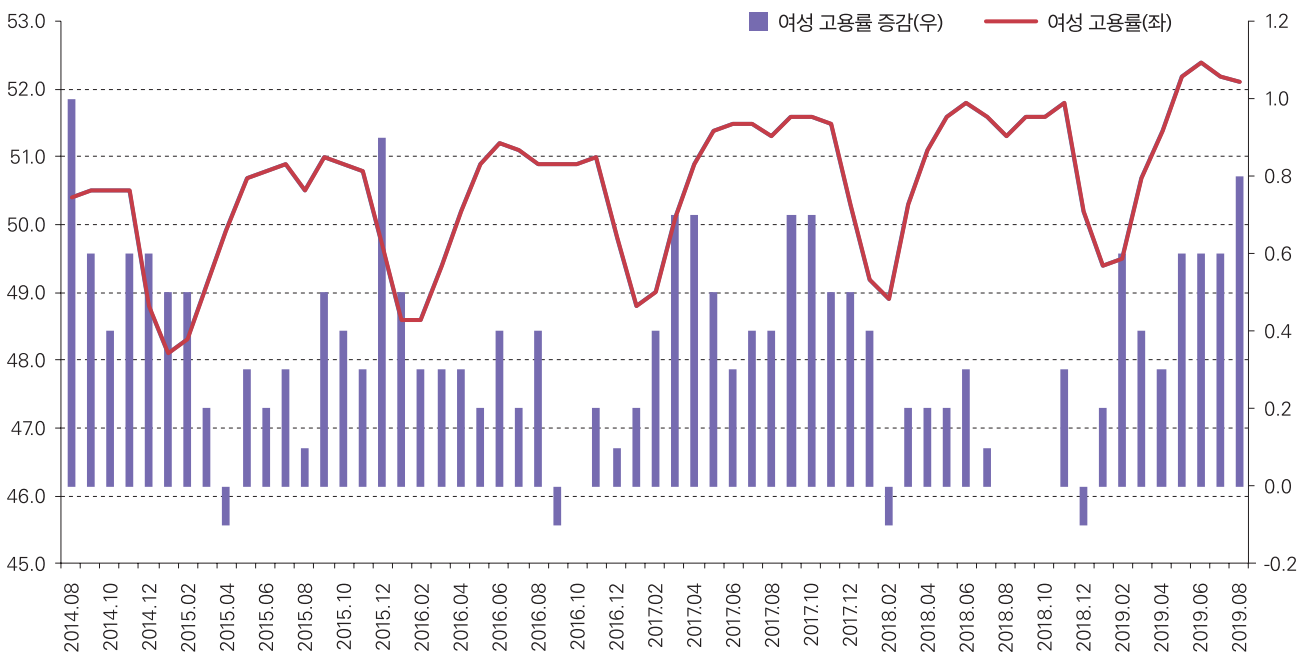
박비곤\*

## 01 서론

- 최근 고용률 상승 및 취업자 수 증가는 여성이 주도
  - 2019년 8월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.5%p 상승했으며 여성은 0.9%p, 남성은 0.2%p 증가
  - 여성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5만 7천명 증가하며 전체 증가 취업자 45만 2천명의 56.9%를 차지
- 지난 5년여간 여성 고용률은 일부 시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꾸준히 증가
  - 2014년 8월에 50.4% 였던 여성 고용률은 2019년 8월, 52.1%를 기록하며 1.7%p 상승

그림 1 여성 고용률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감 추이

(단위: %, 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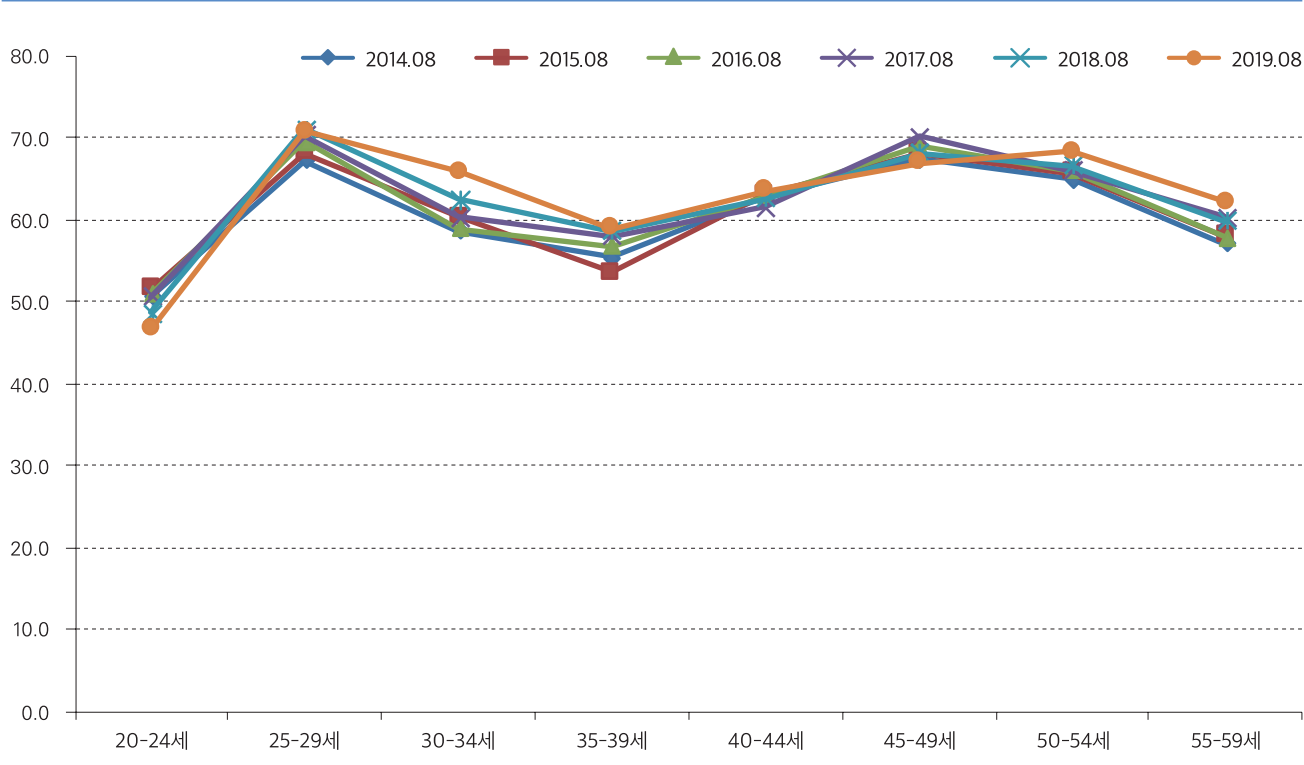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(kosis.kr)

\*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 연구원(cenne08@keis.or.kr)

- 경력단절 양상을 보여주는 연령대별 고용률의 M자 형태 역시 완만해짐
  - 경력단절 연령의 증가와 경력단절 현상 자체의 완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
- 여성의 경력단절이 시작되는 연령대인 30-34세 고용률은 지난 5년여동안 가장 큰 폭으로 상승
  - 2014년 8월 58.7% 였던 고용률이 2019년 8월에 65.8%를 기록하며 5년여동안 7.1%p 상승

그림 2 여성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 (단위: %)



자료 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(kosis.kr)

- 남성과의 고용률 격차가 가장 크게 줄어든 연령대 역시 30-34세로 지난 5년동안 무려 10.4%p 가 줄어듦
  - 2014년 8월에 해당 연령대의 성별 고용률 격차는 31.3%p 였으나 2019년 8월에는 20.9%p를 기록

표 1 연령대에 따른 성별 고용률 격차 추이

(단위: %p)

기간	2014년 8월	2015년 8월	2016년 8월	2017년 8월	2018년 8월	2019년 8월
20 - 24세	-8.2	-10.0	-9.3	-8.9	-11.7	-5.2
25 - 29세	2.9	1.4	0.0	-2.9	-1.1	-0.3
30 - 34세	31.3	30.0	29.6	26.8	24.0	20.9
35 - 39세	36.4	38.0	34.6	34.1	32.3	32.0
40 - 44세	30.4	29.2	30.2	31.6	28.9	28.1
45 - 49세	24.2	23.5	23.4	22.3	23.0	24.0
50 - 54세	25.0	23.8	23.6	24.0	21.7	19.3
55 - 59세	27.8	25.2	27.2	25.0	24.9	21.7

자료 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(kosis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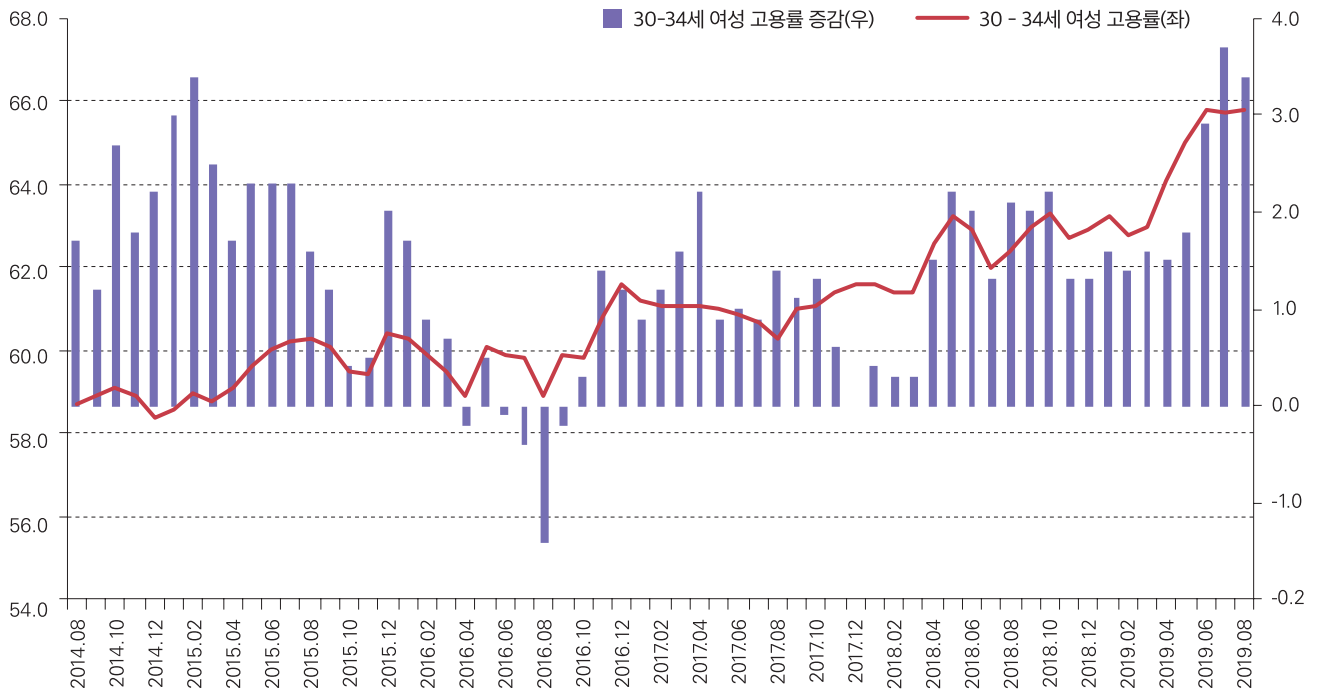
- 30-34세는 경력단절이 시작되는 연령이란 점에서 노동시장 여성 계층 정책의 주요 대상임
- 본고는 30-34세 여성의 고용률 현황과 특징, 원인을 살펴보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며 아울러 취업자 수 증감이 고용 지표로 가지는 한계도 함께 논의하고자 함

## 02 여성 30-34세 고용률 현황과 특징

- 여성 30-34세 고용률은 지난 5년여동안 큰 폭으로 상승
  - 일부 시기를 제외하면 꾸준히 전년 동월 대비 상승을 기록하며 58.7%(2014년 8월)에서 65.8%(2019년 8월)로 증가
  - 특히 2019년 6월 이후 "가사" 상태의 비경제활동인구 수의 대폭 감소와 경제활동참가율, 고용률 상승이 동시에 진행
- 취업자의 경우 동 기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  - 2014년 8월 1,136천명이었던 취업자는 2019년 8월 1,022천명으로 감소

그림 3 30-34세 여성 고용률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감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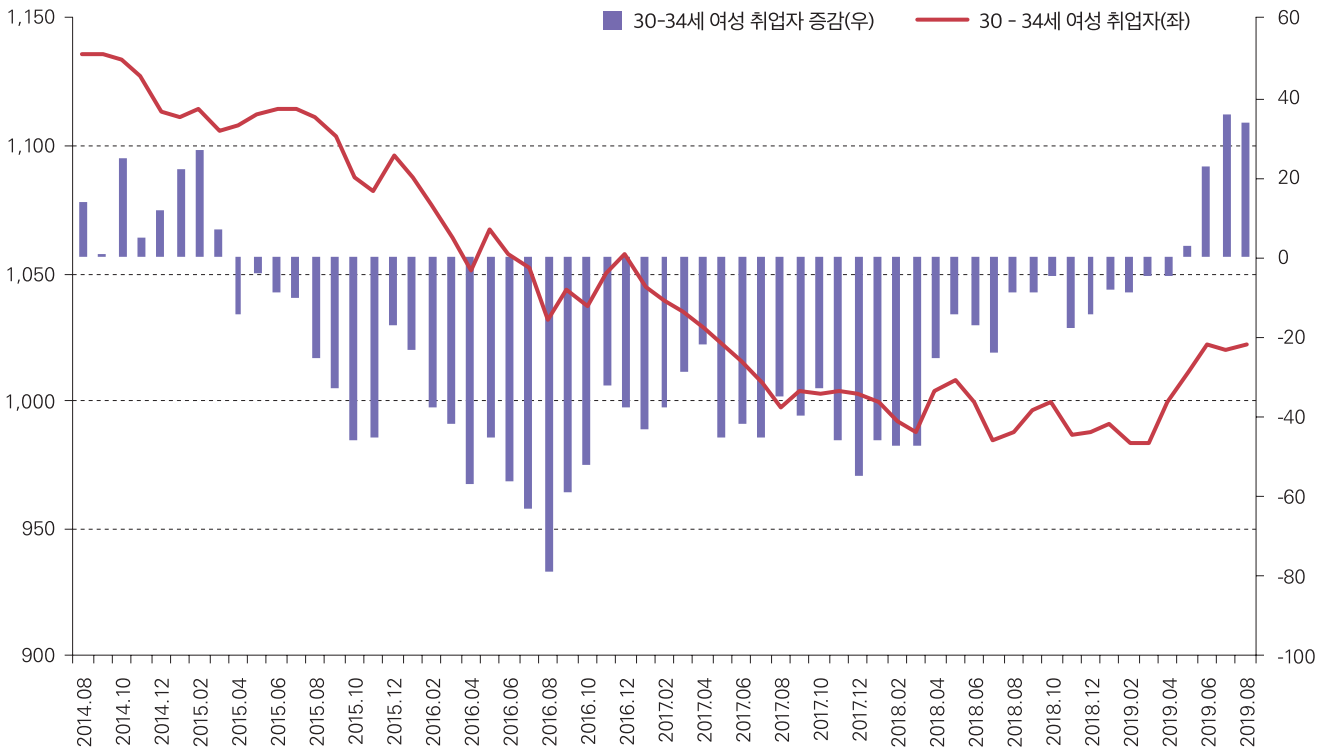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%p)



자료 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(kosis.kr)

그림 4 30-34세 여성 취업자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감 추이

(단위: 천 명)



자료 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(kosis.kr)

- 고용률과 취업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 방향 불일치는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
  -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취업자 수 감소 양상은 연령 프레임 효과(송민기, 2019)를 통해 파악 가능
  - 연령프레임 효과는 해당 연령대에 유입되는 연령 인구나 제외되는 연령 인구의 차이를 의미
  - t-1 기의 34세는 1년 후 t기에 30-34세 연령대에서 제외되고 t-1기의 29세는 해당 연령대에 새로 유입되는 반면 t-1기의 30-33세는 t기에 31-34세가 되어 해당 연령대에 여전히 체류
  -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감은 연령 프레임 효과를 반영하는 A(유입된 취업자 수-제외된 취업자 수)와 나머지 부분 B(체류 취업자 수 증감)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
- 2017년과 2018년의 8월의 총 취업자 수 감소는 A효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, 2019년 8월의 경우 연령 프레임 효과를 제외하면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상승

표 2 연령 프레임 효과를 감안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감

(단위: 천 명)

	2014년 8월	2015년 8월	2016년 8월	2017년 8월	2018년 8월	2019년 8월
A(유입-유출)	22	-24	-48	-59	-29	-10
B(공통 집단)	-8	-1	-31	24	20	45
A+B(취업자 수 증감)	14	-25	-79	-35	-9	34

자료 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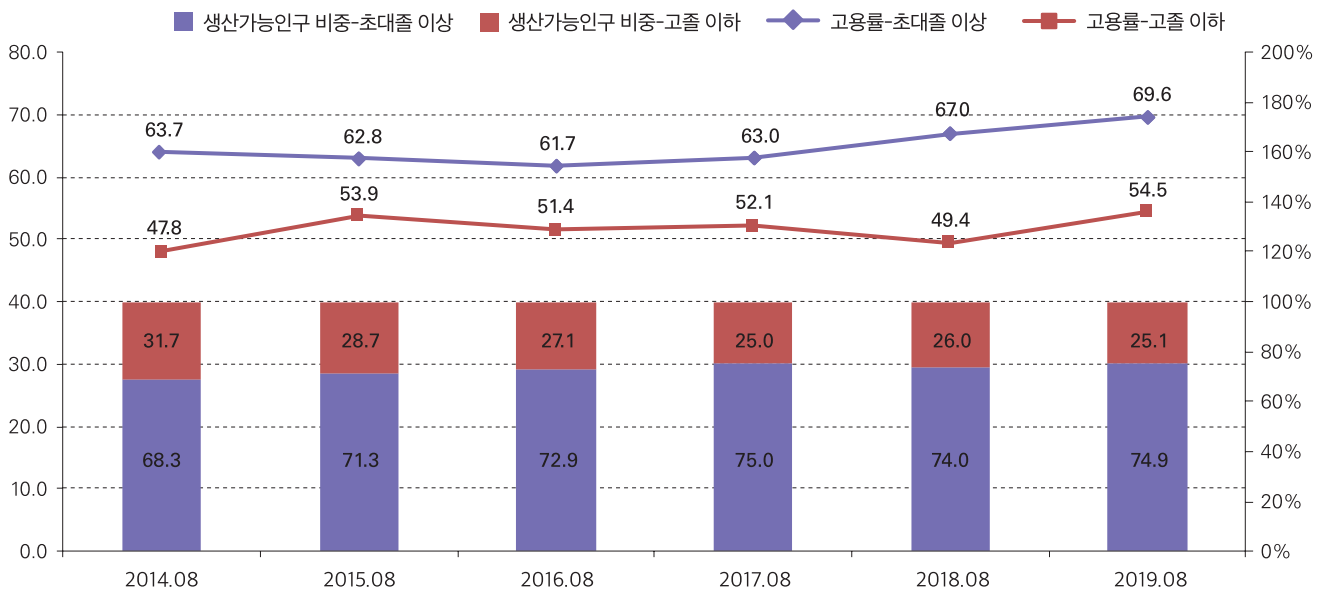
### 03 여성 30-34세 고용률 상승 특징

#### 1) 인적 속성 변화 : 학력 증가와 무배우자 비중 증가

- 배우자 여부와 학력은 여성의 인적 속성 중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
  - 생산가능인구 내에서 무배우자 집단과 고학력 집단은 유배우자와 저학력 집단에 비해 고용률이 높으며 이들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고용률 역시 상승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음
- 최근 5년동안 초대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증가했으며, 고용률은 초대졸 이상과 고졸 이하 모두에서 증가
  - 중간에 감소를 겪긴 했으나 초대졸 이상과 고졸 이하 모두 6%p 이상 정도의 고용률 상승을 달성
  - 동 기간 동안 초대졸 이상이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.3%에서 74.9%로 증가

그림 5 30-34세 여성 학력별 고용률(좌) 및 생산가능인구 비중(우)

(단위: %)



자료 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

- 연령 프레임 효과는 하위 집단별 취업자 현황에도 적용 가능

- 학업 과정이 대부분 마무리된 연령대이기 때문에 학력을 기준으로 연령 프레임 효과를 적용할 수 있으나, 배우자 유무의 경우에는 해당 연령대 내에서 나이를 먹을수록 혼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령 프레임 효과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

- 초대졸 이상 취업자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연령 프레임 효과는 취업자 증감 상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드러냄

- 2014년 8월을 제외한 모든 시기에서 연령 프레임 효과는 음의 값으로 나타나 취업자 수 증감 상태를 과소평가하게 만들었으며, 특히 2017년 8월의 경우 증감의 부호마저 바꾼 것으로 나타남

표 3 연령 프레임 효과를 감안한 초대졸 이상 취업자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감

(단위: 천 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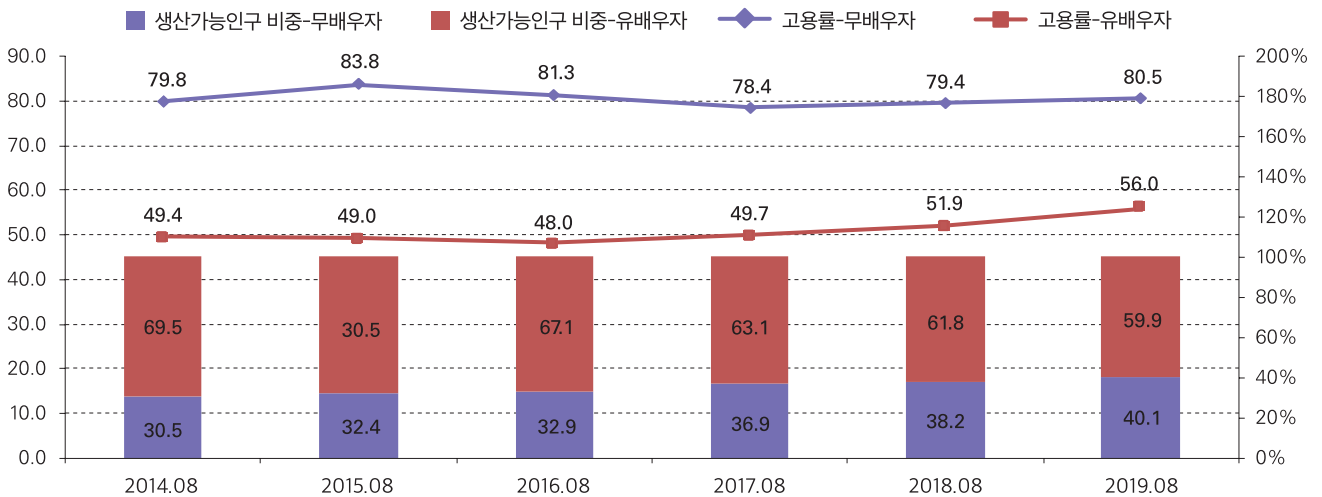
	2014년 8월	2015년 8월	2016년 8월	2017년 8월	2018년 8월	2019년 8월
A (유입-유출)	34	-6	-22	-30	-2	-11
B (공통 집단)	-11	-12	-15	23	6	37
A+B (취업자 수 증감)	23	-18	-38	-7	3	26

자료 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

- 배우자 여부별 현황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유배우자 여성 고용률의 대폭 증가와 무배우자 여성 비중 상승이 동시에 진행됐다는 사실임
  - 유배우자 여성의 고용률은 2014년 8월 49.4%에서 2019년 8월 56.0%로 6.6%p 상승하였으며, 무배우자 여성은 같은 기간에 0.6%p 증가
  - 동기간 동안 무배우자 여성이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.5%에서 40.1%로 10%p 가까이 증가

그림 6 30-34세 여성 배우자 여부별 고용률(좌) 및 생산가능인구 비중(우)

(단위: %)



※ 이혼, 사별은 무배우자에 포함

자료 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

- 요인분해\*를 통해 살펴본 결과 고용률 제고와 함께 무배우자 인구 비율의 증가 역시 고용률 증가에 계속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
  - 무배우자 인구 비중 증가로 인한 고용률 상승을 보여주는 구성효과는 꾸준히 양의 값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 8월에 큰 영향력을 발휘
  - 대부분의 시기에서 고용률 효과가 구성효과보다 크게 나타난 것은 무배우자 비중의 상승보다는 유배우자 인구의 고용률 증가가 30-34세 여성 고용률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을 의미

표 4 배우자 여부에 따른 고용률 변화요인 분해

(단위: %p)

	2014년 8월	2015년 8월	2016년 8월	2017년 8월	2018년 8월	2019년 8월
구성효과	0.6	0.6	0.2	1.3	0.4	0.5
고용률 효과	1.2	0.9	-1.5	0.2	1.8	2.9
고용률 증감	1.7	1.6	-1.3	1.3	2.2	3.4

자료 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

\* 두 시점 간 고용률 변화는 첫째 항인 혼인상태별 인구 비중 증감으로 인한 변화분과 두 번째 항인 각 인구집단별 고용률 증감으로 인한 변화분의 합의 근사값으로 볼 수 있음  $E_t - E_{t-1} = \sum_{i=1}^n [E_{i,t}^1 (P_i^1 - P_{i,t-1}^1) + P_{i,t-1}^1 (E_{i,t}^1 - E_{i,t-1}^1)] + (E_{i,t}^1 - E_{i,t-1}^1) (P_i^1 - P_{i,t-1}^1)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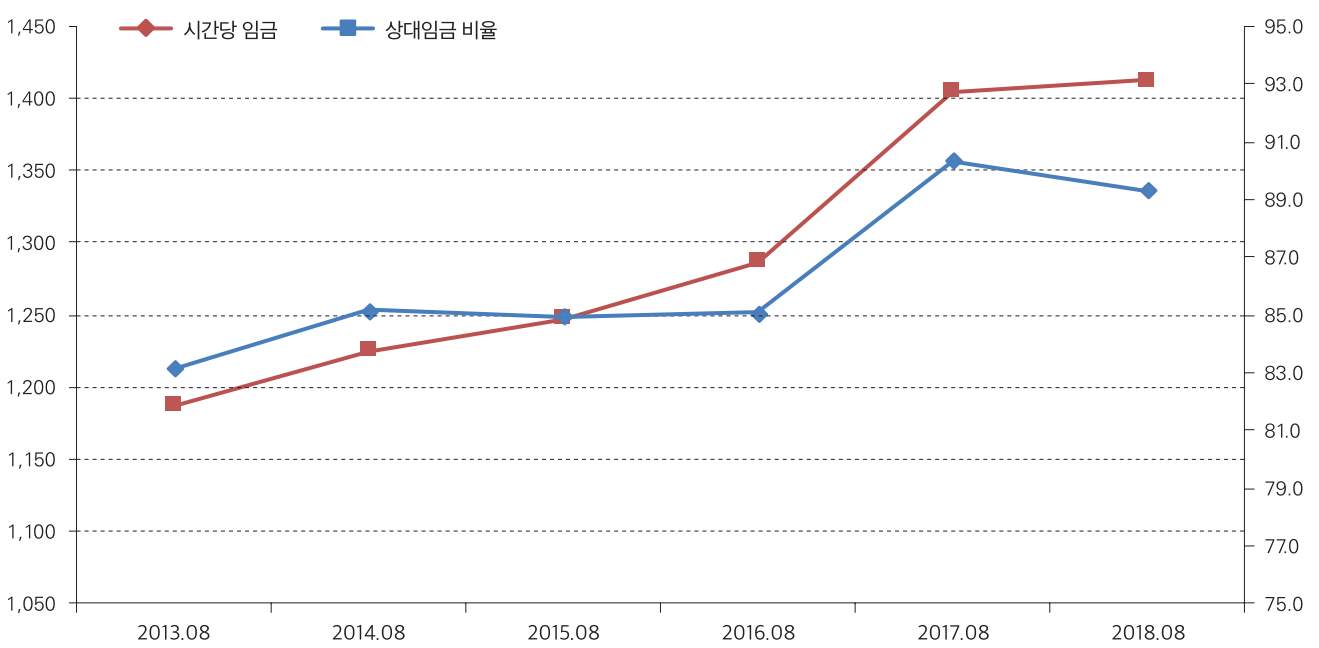


- 미혼, 고학력 인구 비중의 증가가 고용률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전체 상승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음
  - 일자리 속성 변화를 통해 고용률 상승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

## 2) 일자리 속성 변화

- 해당 연령대의 인구 감소 상황을 감안하기 위해 취업자 수 증감과 비율 지표를 함께 살펴봄
  - 5년의 시간은 코호트가 완전히 교체되는 시간이므로 코호트별 비교 역시 가능
-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최근 5년간 자료를 통해 임금 수준 변화를 살펴본 결과 30-34세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증가, 성별 임금 격차는 감소
  -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2013년 1.187만원에서 2018년 1.413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상대임금 비율 역시 83.2%에서 89.3%로 증가
- 30-34세 여성의 시간당 임금 증가는 여성 노동 공급 증가로 이어져 고용률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

그림 7 30-34세 여성 시간당 임금 및 상대임금 비율 추이 (단위: %p)



※ 상대임금 비율 = 여성 시간당 임금 / 남성 시간당 임금  
 자료 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

- 최근 5년동안 30-34세 여성 고용률 상승은 단시간 취업자 수(36시간 미만)의 증가에 힘입음
  - 2019년 7월의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년 전에 비해 10만 5천명이 증가했으며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3만 5천명이 감소
  - 이에 따라 36시간 미만 취업자의 비중은 2014년 7월, 13.6%에서 2019년 7월 25.3%로 크게 증가
-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계속 감소하였으나 최근 1년동안에는 감소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남
- 36시간 미만 취업자의 증가는 유배우자 여성이 주도
  - 유배우자 여성의 2019년 7월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5년 전에 비해 8만 명이 증가하며 비중 또한 크게 상승
- 그림 6에서 살펴봤던 유배우자 여성의 고용률 상승은 단시간 취업자의 증가에 힘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

표 5 30-34세 여성 시간별 취업자 수 추이

(단위: 천 명, %, %p)

		취업자 수			취업자 수 증감		비중		비중 증감
		2014년 7월	2018년 7월	2019년 7월	2019-2014	2019-2018	2014년 7월	2019년 7월	2019-2014
전체	계	1,125	984	1,020	-105	36	100.0	100.0	
	18시간 미만 무급	75	0	0	-75		6.6	0.0	-6.6
	1-35시간	153	221	258	104	37	13.6	25.3	11.6
	36시간 이상	897	763	762	-135	0	79.7	74.7	-5.0
무배우자	계	470	474	490	20	16	100.0	100.0	
	18시간 미만 무급	2	0	0	-2	0	0.5	0.0	-0.5
	1-35시간	47	56	67	20	11	10.1	13.7	3.6
	36시간 이상	420	418	423	3	5	89.4	86.3	-3.1
유배우자	주당 근로시간	655	510	530	-125	21	100.0	100.0	
	세전 월임금	72	0	0	-72	0	11.0	0.0	-11.0
	주당 근로시간	106	165	190	85	26	16.2	35.9	19.8
	세전 월임금	477	345	340	-138	-5	72.8	64.1	-8.8

※ 일시휴직자는 제외

※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5일이 포함된 한 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, 8월은 광복절로 인해 단시간 취업자가 과대조사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7월 기준 데이터를 활용

자료 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

- 최근 5년동안 총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임금 근로자 비중이 0.6%p 증가하였는데, 주로 상용직의 비중 증가에 기인
- 무배우자 여성은 상용직의 비중이 크게 상승한 반면 유배우자 여성의 경우 상용 근로자 수가 감소하며 비중 역시 감소하였지만 임시직의 비중이 증가해 배우자 여부별로 다른 결과를 보임
  - 유배우자 여성의 고용률 증가의 배경에는 단시간, 임시직 일자리가 존재
- 2019년 8월 기준 최근 1년의 변화를 보면 유배우자 여성 내에서도 상용직 취업자 수가 증가하여 지난 5년과는 다른 방향의 변화를 보임

표 6 30-34세 여성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변화 추이

(단위: 천 명, %, %p)

		취업자 수			취업자 수 증감		비중		비중 증감
		2014년 8월	2018년 8월	2019년 8월	2019-2014	2019-2018	2014년 8월	2019년 8월	2019-2014
전체	계	1,136	988	1,022	-114	34	100.0	100.0	
	임금 근로자	1,006	856	911	-95	55	88.5	89.1	0.6
	- 상용직	771	692	730	-41	39	67.9	71.4	3.5
	- 임시직	218	154	164	-54	10	19.2	16.0	-3.2
	- 일용직	16	11	17	0	6	1.4	1.6	0.2
	비임금 근로자	130	131	111	-19	-20	11.5	10.9	-0.6
	고용원 있는 자영	22	36	22	0	-14	1.9	2.2	0.2
	고용원 없는 자영	71	69	67	-4	-2	6.2	6.5	0.3
	무급가족종사자	38	27	22	-15	-5	3.3	2.2	-1.1
무배우자	계	472	480	501	29	21	100.0	100.0	
	임금 근로자	430	425	445	15	20	91.2	88.9	-2.3
	- 상용직	323	359	379	56	20	68.5	75.7	7.3
	- 임시직	105	61	60	-45	-1	22.3	12.0	-10.3
	- 일용직	2	5	6	4	1	0.5	1.2	0.7
	비임금 근로자	41	55	56	14	0	8.8	11.1	2.3
	고용원 있는 자영	4	13	9	6	-4	0.8	1.8	1.1
	고용원 없는 자영	29	39	41	12	2	6.2	8.2	2.0
	무급가족종사자	8	3	5	-3	2	1.8	1.0	-0.7

유배우자	계	655	507	521	-143	14	100.0	100.0	
	임금 근로자	576	431	466	-110	34	86.6	89.3	2.7
	- 상용직	449	332	351	-98	18	67.5	67.3	-0.2
	- 임시직	113	93	104	-9	11	17.0	19.9	2.9
	- 일용직	14	6	11	-3	5	2.1	2.1	-0.1
	비임금 근로자	89	76	56	-33	-20	13.4	10.7	-2.7
	고용원 있는 자영	18	22	13	-5	-10	2.7	2.4	-0.3
	고용원 없는 자영	41	30	26	-15	-4	6.2	5.0	-1.3
	무급가족종사자	30	24	17	-12	-7	4.4	3.3	-1.2

자료 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

-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, 정보통신업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며 최근 5년의 고용률 상승을 견인
  - 숙박 및 음식점업은 지난 5년여동안 1만 8천명, 정보통신업 역시 1만 8천명이 증가
  - 전체 취업자 내 비중 역시 숙박 및 음식점업은 3.3%p, 정보통신업은 2.0%p 상승
- 무배우자 여성은 해당 기간 동안 도매 및 소매업과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취업자가 증가하여 취업자 내 비중이 상승했으나, 유배우자 여성의 경우 감소한 것이 차이
- 최근 1년의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1만 7천명 증가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9천명 증가로 나타나 지난 5년과 다른 방향의 변화가 진행

표 7 30-34세 여성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추이

(단위: 천 명)

	취업자 수			취업자 수 증감		비중		비중 증감
	2014년 8월	2018년 8월	2019년 8월	2019-2014	2019-2018	2014년 8월	2019년 8월	2019-2014
계	1,136	988	1,022	-114	34	100.0	100.0	
농림어업	5	7	10	4	2	0.5	0.9	0.5
광업	0	1	0	0	-1	0.0	0.0	0.0
제조업	154	116	133	-21	17	13.5	13.0	-0.5
전기가스	0	1	1	1	0	0.0	0.1	0.1
수도재생	1	0	2	1	2	0.1	0.2	0.1
건설업	20	20	14	-5	-6	1.7	1.4	-0.3
도소매업	144	133	137	-7	4	12.7	13.4	0.7
운수창고	26	16	18	-8	2	2.3	1.8	-0.5
숙박음식	60	73	79	18	6	5.3	7.7	2.4

정보통신	45	50	63	18	14	4.0	6.2	2.2
금융보험	73	50	46	-26	-3	6.4	4.5	-1.9
부동산	6	10	8	2	-2	0.6	0.8	0.3
전문과학기술	87	80	81	-6	1	7.6	7.9	0.3
사업서비스	36	40	42	6	2	3.2	4.1	1.0
공공행정	53	56	42	-10	-14	4.7	4.1	-0.5
교육서비스	189	136	132	-58	-4	16.7	12.9	-3.8
보건복지	174	144	153	-21	9	15.4	15.0	-0.4
예술여가	17	22	22	4	0	1.5	2.1	0.6
협회개인서비스	41	32	36	-5	4	3.6	3.6	-0.1
가구내고용	0	0	0	0	0	0.0	0.0	0.0
국제	2	1	1	-1	0	0.2	0.1	-0.1

자료 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

- 직종별로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, 단순노무 종사자, 서비스 종사자의 증가가 5년동안의 고용률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남
  -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, 서비스 종사자 수 증가는 표7의 숙박 및 음식점업, 정보통신업 취업자 수 증가를 반영
- 무배우자 여성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부문에서 증가했으나 유배우자 여성의 경우 감소했으며 이는 표7의 산업별 변화에 상응하는 결과
- 다만 최근 1년동안은 사무 종사자가 1만 4천명,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1만 3천명 증가해 지난 5년동안의 변화와는 다른 양상을 드러냄
  - 최근 1년동안 제조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문 취업자 수 증가와 호응하는 결과로 판단됨

표 8 30-34세 여성 직업별 취업자 수 변화 추이

(단위: 천 명)

	취업자 수			취업자 수 증감		비중		비중 증감
	2014년 8월	2018년 8월	2019년 8월	2019-2014	2019-2018	2014년 8월	2019년 8월	2019-2014
계	1,136	988	1,022	-114	34	100.0	100.0	
관리자	2	0	0	-2	0	0.2	0.0	-0.2
전문가	423	370	383	-41	13	37.3	37.5	0.2
사무직	413	353	367	-47	14	36.4	35.7	-0.5
서비스	87	89	87	0	-2	7.7	8.6	0.9
판매	113	78	82	-30	4	9.9	8.0	-1.9
농림축련	5	6	5	-1	-1	0.5	0.5	-0.0
기능원	5	15	14	8	-2	0.5	1.3	0.9

기계조작	35	24	29	-6	5	3.1	2.8	-0.3
단순노무	52	51	56	4	4	4.5	5.5	0.9

자료 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

## 04 결론

- 지난 5년여간 30-34세 여성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했으나 취업자는 감소
  - 이는 해가 지나며 유입되는 인구보다 유출되는 인구가 큰 연령 프레임 효과에 의한 것으로 연령 프레임 효과를 제외하면 취업자는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- 30-34세 여성의 고용률 상승에는 학력 상승, 무배우자 비중 증가, 유배우자 여성의 고용률 상승, 시간당 임금의 증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
  - 특히 단시간 및 임시직 일자리가 유배우자 여성의 고용률 상승의 배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최근 1년동안에는 36시간 이상 취업자 감소세가 멈추고 임금 근로자 중 상용직이 크게 늘었으며 제조업, 사무직 및 전문직 종사자 수가 증가하는 변화가 생김
- 30-34세는 노동시장 진입 이후 본격적으로 숙련을 쌓아야 할 연령대이면서 동시에 여성의 경력단절이 시작되는 시기로 이 연령대의 노동시장 이탈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
- 현재의 고용률 상승 기초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노동시장 내 차별 시정 조치 및 인식 개선, 초과근로 감소 노력과 함께 여성이 단시간, 임시일용직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함
  - 특히 시간제 및 임시직 일자리의 증가가 유배우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견인한 측면이 있으나 재이탈 역시 용이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
- 여성 정책의 초점을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서 경력단절 방지 대책으로 전환할 필요 있음

## 참고문헌

송민기(2019), 「연령 프레임 효과로 인한 연령별 취업자 증감 지표의 착시현상과 시사점」,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28권 5호



# 연령대별 고용률 증감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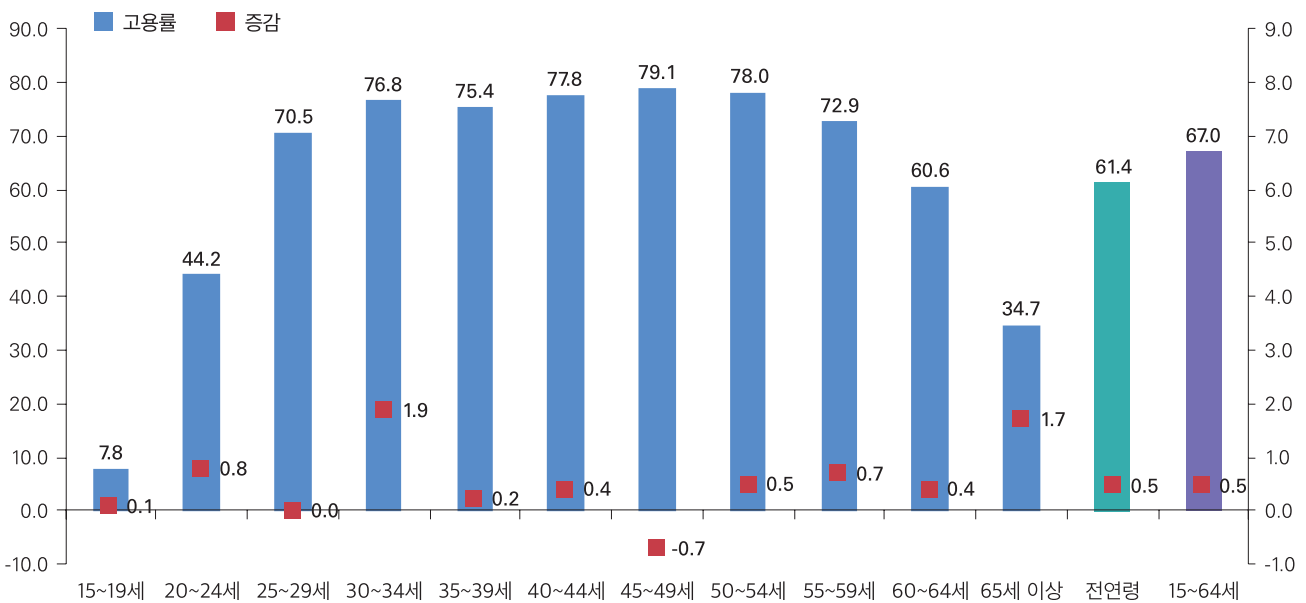
윤정혜\*

» 2019년 8월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률은 전년 동월대비 0.5%p 상승한 61.4% 기록

- 고용율은 40대 후반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증가
- 고용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연령대는 30대 초반 연령층으로 전년 동월대비 1.9%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

그림 1 연령대별 고용률 현황

(단위: %, %p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, 2019년 8월

\* 한국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(jeong76@keis.or.kr)



## » 고용률 증감을 성별로 보면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

- 여성의 경우 20대와 40대 후반에서는 고용률이 감소하였으나, 30대 초반과 50대 후반 여성의 고용률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3.4%p, 2.3%p 상승하여 전체 고용률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
- 반면, 남성의 경우 4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 중년층에서 고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- 40대 후반은 남녀 모두 고용률이 감소한 연령대로, 여성의 감소폭이 더 컸음

표 1 성·연령별 고용률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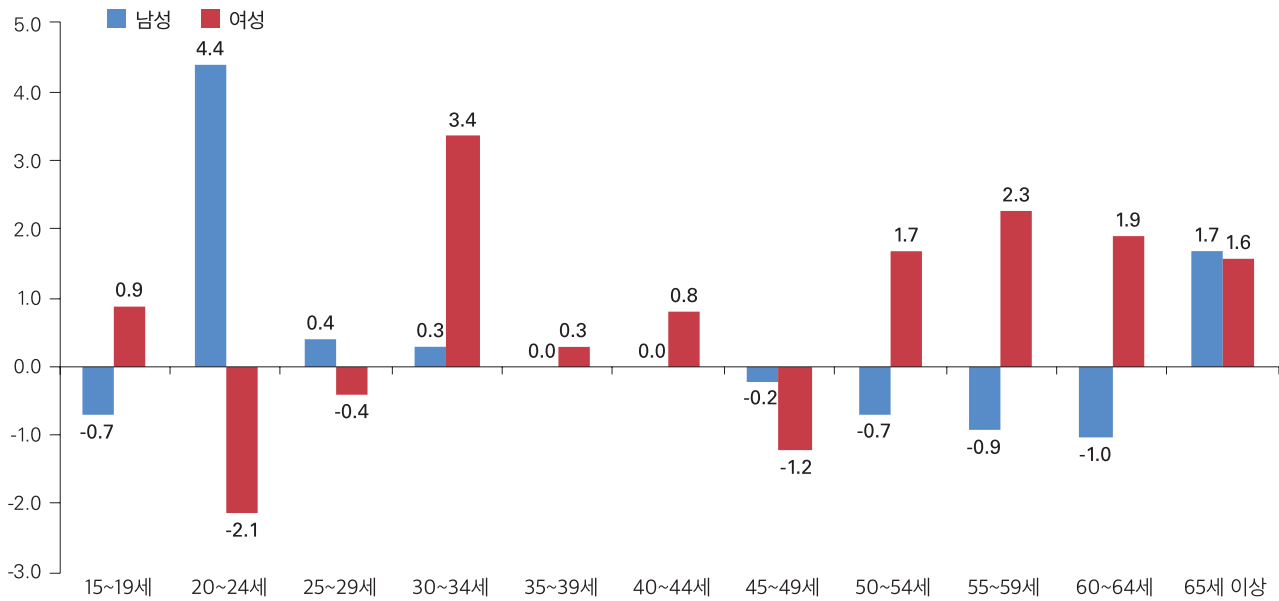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%p, 전년동월대비)

	전체		남성		여성	
	고용률	변동률	고용률	변동률	고용률	변동률
전 연령	61.4	(0.5)	71.0	(0.2)	52.1	(0.8)
15-19세	7.8	(0.1)	6.3	(-0.7)	9.3	(0.9)
20-24세	44.2	(0.8)	41.4	(4.4)	46.6	(-2.1)
25-29세	70.5	(0.0)	70.4	(0.4)	70.7	(-0.4)
30-34세	76.8	(1.9)	86.7	(0.3)	65.8	(3.4)
35-39세	75.4	(0.2)	90.9	(0.0)	58.9	(0.3)
40-44세	77.8	(0.4)	91.6	(0.0)	63.5	(0.8)
45-49세	79.1	(-0.7)	91.0	(-0.2)	67.0	(-1.2)
50-54세	78.0	(0.5)	87.6	(-0.7)	68.3	(1.7)
55-59세	72.9	(0.7)	83.8	(-0.9)	62.1	(2.3)
60-64세	60.6	(0.4)	71.8	(-1.0)	49.8	(1.9)
65세 이상	34.7	(1.7)	43.9	(1.7)	27.8	(1.6)

자료 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, 2019년 8월.

그림 2 성·연령대별 고용률 증감 현황

(단위: %p, 전년동월대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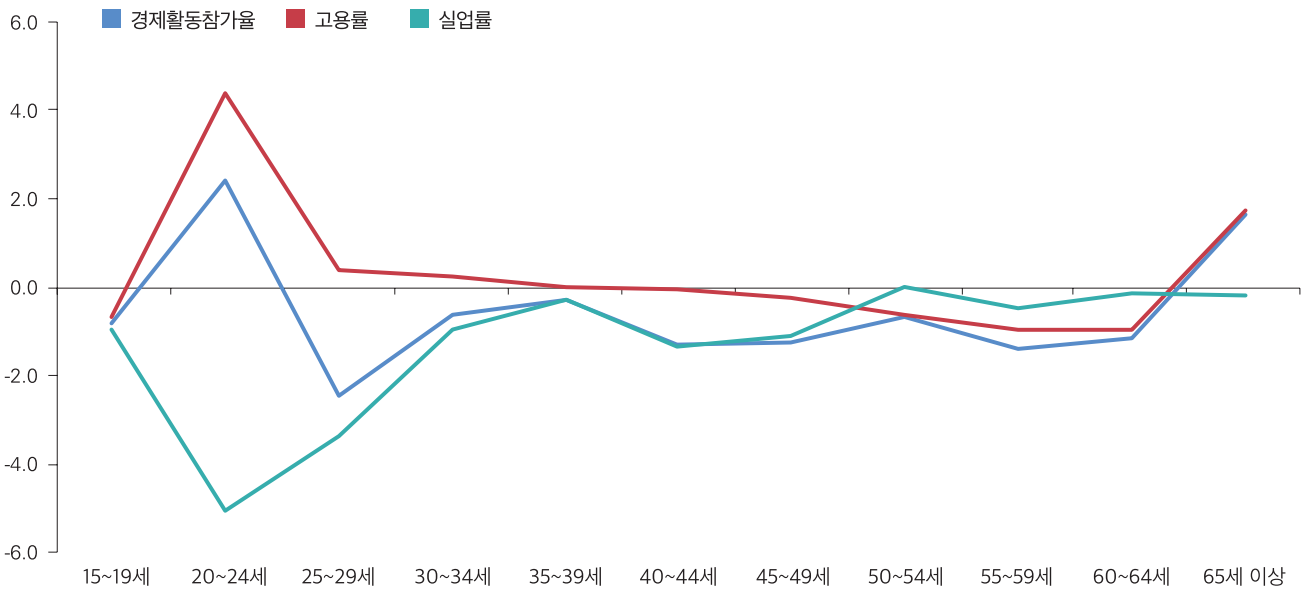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, 2019년 8월

» 중년 남성의 경우 고용률 감소와 함께 실업률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면서, 비경제활동인구화 현상이 뚜렷해짐

- 2019년 8월 기준 남성 실업률을 보면, 50대 초반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감소하였으며, 50대 초반 실업률도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보임
-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 초반 청년과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증가하였으나, 그 외 연령층에서는 감소하였음
-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는 실업률 감소의 영향으로 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화 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이며, 특히, 4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 연령층은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
- 중년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고 '쉬었음' 형태의 비경제활동인구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2019년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 중 남성 '쉬었음' 인구는 전년 동월대비 26만 6천명 증가하였으며, 이 중 절반은 고용률이 감소한 중년층에서 증가하였음

그림 3 남성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, 고용률, 실업률 증감 현황

(단위: %p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, 2019년 8월

표 2 남성 연령대별 경제활동 현황(전년동월대비 증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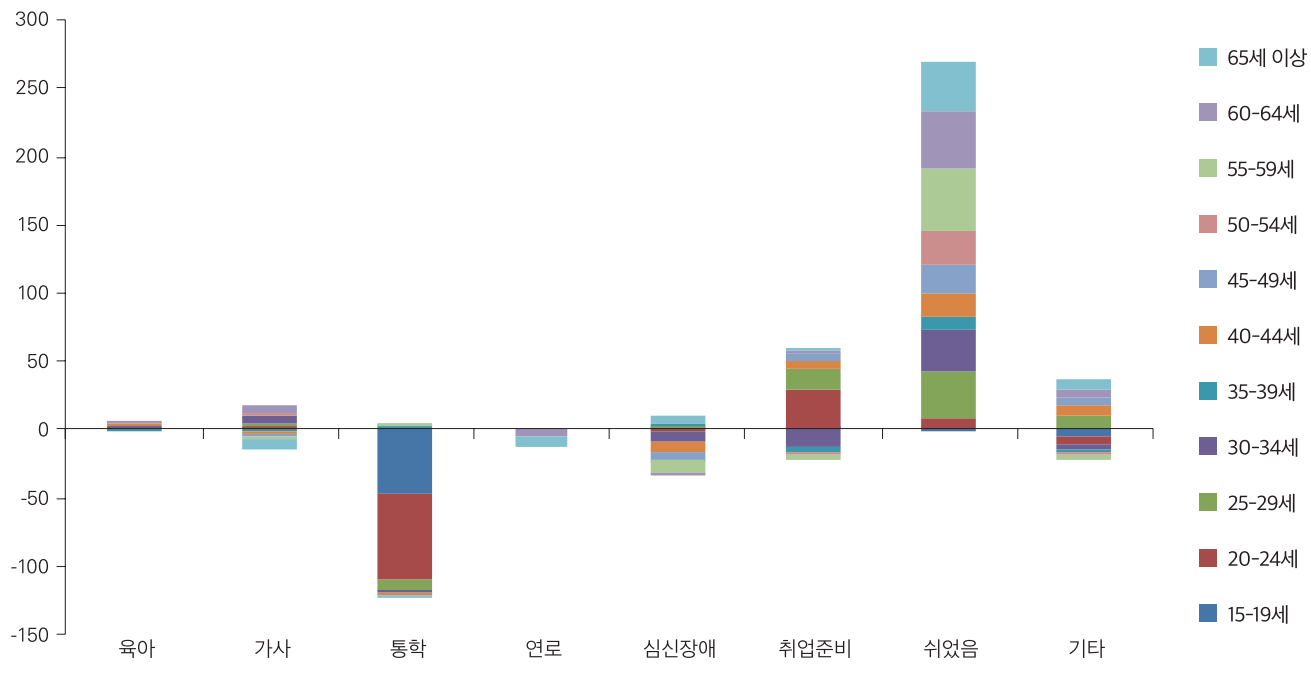
(단위: 천명, %p)

	인구	인구			경제활동 참가율	고용률	실업률
		취업자	실업자	비경제활동 인구			
15-19세	-72	-14	-3	-55	-0.8	-0.7	-1.0
20-24세	-5	56	-26	-34	2.4	4.4	-5.0
25-29세	50	42	-49	57	-2.4	0.4	-3.4
30-34세	-15	-9	-16	10	-0.6	0.2	-1.0
35-39세	-24	-22	-6	4	-0.3	0.0	-0.3
40-44세	-36	-33	-26	24	-1.3	0.0	-1.3
45-49세	-27	-30	-24	27	-1.3	-0.2	-1.1
50-54세	70	48	1	21	-0.7	-0.6	0.0
55-59세	-16	-33	-10	28	-1.4	-0.9	-0.5
60-64세	113	65		48	-1.1	-1.0	-0.2
65세 이상	158	124	-1	35	1.7	1.7	-0.2
전 연령	197	195	-160	163	-0.5	0.3	-1.0

자료 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, 2019년 8월.

그림 4 남성 연령대별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현황

(단위: 천명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, 2019년 8월.

# 고용동향 브리프

2019

Vol.5

